

충남발전연구원



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

-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의 경험 -



2011. 10. 7

구 자 인 (gujain@korea.kr)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준비팀장)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지역자급순환경제

- 1) 논의의 출발 배경 : 발표자의 학문적 뿌리
 - 생태학(지역) → 도시환경정책(도농관계) → 산촌경제학(마을)
 - 1992년 테제 : 지방자치선거, 리우환경회의 → 마을만들기
- 2) 박사학위(2003년)의 테마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조건
 - 산촌 마을의 역사와 현재 → 쇠퇴의 근본 원인에 대한 규명
 - “지역자급과 지역자치” : 마을 역사, 공동산, 유기농업, 귀농 연구
- 3) “지역자급순환경제”라는 개념 제안
 - 마을만들기,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 등을 연결시켜주는 포괄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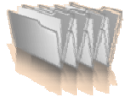
1 지역자급 순환경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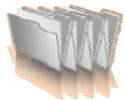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관련시스템, 자원이용시스템의 한 형태



인간 사회의 필요물을 일정 공간범위 내에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하는 경제시스템



자연과 사회, 상호관계의 모든 지속가능성을 동시 추구



거대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전환시키기 위한 대안 이론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대량생산)



자연과 경제 사이의 순환시스템을 지역사회 내에서 재구축 -> 자립된 지역간의 대등한 관계 형성

2 지역자급의 대상 : 3유형

- 1 食物 : 유형자원 영역
먹거리, 생산/생활자재, 물, 에너지, 퇴지, 사료 등
- 2 人間 : 인적 자원 영역
인간 자체와 노동력, 고용, 서비스(교육, 의료, 소방 등)
- 3 貨幣 : 무형자본 영역
돈 자체와 추상적 자본, 자치단체 재정 등

위 3유형의 지역자급이 기초가 되어 정신적 자립, 고유한 지역풍토 형성도 가능

3 지역자급의 수준

1

모든 것의 100% 지역자급은 불가능. 자연계법칙에도 어긋남

2

바람직한 지역자급의 수준은 다음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됨

- 1) 생산/생활자재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 2) 지역의 자연적 유형(평야지, 산촌, 근교농촌 등)에 따라
- 3) 지역의 범위(마을, 지자체, 유역, 광역 등) 설정에 따라
- 4)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 측면을 고려함에 따라

3

지역사회의 토지 및 사회 환경용량(carrying capacity)에 기초하여 설정

4 지역자금의 주체와 범위

1

지역특성, 자금 수준, 자금 대상 등에 따라 다양

2

가족 단위가 기본. 정책과 운동 측면에서 마을 및 지자체로 확장

- 1) 농가자금형 : 지역자금의 출발점이자 원점
- 2) 마을자금형 : 농촌 마을 공동체의 전통적인 특징
- 3) 지자체자금형 : 가장 실천적인 주체이자 범위
- 4) 유역권자금형 : 농공일체형, 도농공존형 지역만들기 관점

3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라는 가치를 존중한 주체와 범위 설정
공간이동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개방적 범위 설정

5 지역자급순환경제 구축의 의의

1

과거회귀나 현실도피가 아닌 분명한 시대적 방향성 가짐

- 1) 地產地消, 슬로푸드 :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
- 2) 농산물 직매소, 지역화폐
- 3) 합교급식 조례 만들기 등

2

지역내부의 물질순환 시스템 회복, 내외부 유통시스템의 균형 도모
지역 외부에 대해 대등한 경제자립체계 구축,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

3

지역과 농촌의 희생 위에 성립하는 근대사회에 대한 반성
세계화가 초래하는 지역경제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결과

6 지역자급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일본 사례

1) 일본 농수성의 지역 식량자급 환산용 소프트웨어 보급

2002년 4월에 최초 발표.

농산물의 지역내 연간생산량을 지역내 전세대의 연간소비량으로 나눈 값.
품목별 계산 가능

(<http://www.kanbou.maff.go.jp/www/jikyu/jikyu04.htm>)

2) JA 전국여성조직협의회의 '지역농산물자급율 점검운동'

2002년 5월 시작.

산하 조직에 지역자급율 환산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여 공동 조사 실시.

100% 이하 농산물에 대해 지역내 생산 가능성과
지역내 유통시스템 정비를 검토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titled '地域食料自給率計算' (Regional Food Self-Sufficiency Rate Calculation). It includes fields for '地域名' (Region Name), '調査年度' (Survey Year), and '調査機関' (Survey Organization). Below these are several rows of input fields for different food categories, each with a unit and a calculation button. The categories include '米' (Rice), '小麦' (Wheat), '大豆' (Soybean), '雑穀' (Grain), '油' (Oil), '肉' (Meat), '魚' (Fish), '卵' (Egg), '乳' (Milk), '野菜' (Vegetable), '果物' (Fruit), and 'その他' (Others). The form is designed for data entry and calculation of the self-sufficiency rate.

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의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운동
주요 내용은 1) '월1회 지역먹거리의 날' 운영, 2) 학교급식 이용 확대,
3) 식품산업의 이용 촉진, 4) 바른 식생활 지침의 보급 등
(<http://www.pref.iwate.jp/~hp0505/>)

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의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운동
주요 내용은 1) '월1회 지역먹거리의 날' 운영, 2) 학교급식 이용 확대,
3) 식품산업의 이용 촉진, 4) 바른 식생활 지침의 보급 등

4) 기후현(岐阜縣) 지역자급율 향상을 위한 '식료확보계획'

1999년 3월에 발표.

1996년 기준으로 36%였던 자급율을 2003년까지 50%까지 향상 목표.

권역별, 품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2003년에 40%에 그쳐 2006년 목표를 45%로 하향조정.

5) 오이타현(大分縣) 시모고(下郷) 농협

1948년에 소작인 중심으로 설립. 쌀, 보리 등을 판매하며 성장.

1960년대부터 지역내 자급운동 추진.

현재 5개 생협, 25개 소비자그룹(50-500세대 규모, 950반)과 직거래.

농협 합병 거부, 우유 프랜트 집약화에 반대. JA 명칭 거부.

농협 슬로건 :

“소비자와 연대하고, 유축복합경영을 추진한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자급우선의 생산과 생활을 기초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자”

(<http://www.simoonokvou.or.jp/index.html>)



6) 지역내 생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사례

학교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1)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2) 교육효과를 높이며,

(3) 나아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노리는 취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시도중.

전국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정착중. (일본 농문협, 『食農教育』잡지)

지역자급에 의한 사회,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7) '지역이 뒷받침하는 농업(CSA)' 시스템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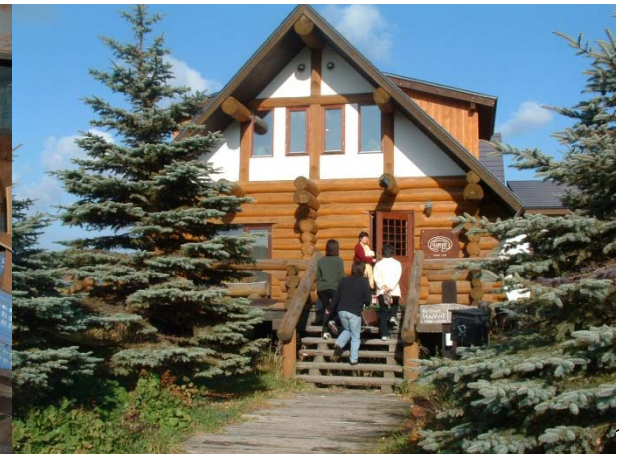
농산물의 지역내 순환적 유통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

소비자가 같은 지역의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선불제로 직접 구입하는 방식.

기존 직거래 방식과의 차이는

(1) 원격지 유통을 자제하고 지역내 유통을 중시한다는 점,

(2) 작물을 심기 전에 소비자가 1년분을 선불로 낸다는 점



8) 지역통화를 활용한 방식

(1) 지역내 경제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2) 부의 외부유출을 억제하고,
(3) 지역 환경부하를 저감시키자는 등의 취지로 널리 도입

(1) 물질순환과 경제순환을 조화시키고,
(2) 양방의 순환을 지역내에서 동시에 링크시키기 위해서는
(3) 화폐의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제기.

2005년 4월 현재 전국에서 536건이 보고.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

<지역통화 관련 일본어 서적>

◆地域活性化センター,月刊誌『地域づくり』2003年12月号「地域通貨」特集号(13論文)

◆地域活性化センター自主研究事業,「地域通貨によるコミュニティの再生について調査研究報告書」(146P/2004年2月)

◆財団法人地域活性化センター,「新しい経済活動を伴う地域経済の活性化に関する研究会」(総務省)報告書(2004年3月)

◆総務省,地域再生関連施策(上記研究会第2回<2003.12.5>/第3回<2004.3.19>資料等)

◆中小企業庁,「地域通貨を活用した地域商業等の活性化に関するモデル提案」について(240P/2004年3月)

◆大阪府立産業開発研究所,「『コミュニティ型商店街』が中心的な役割を果たす地域の活性化」(概要版3P/2004年3月)

◆福岡県NPO・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やってみようよ!地域通貨~地域通貨導入の手引き」(60P/2004年3月)

◆愛媛県,「地域通貨をはじめませんか/地域通貨実践マニュアル」(32P/2004年9月)

◆平成16年版,「国民生活白書~人のつながりが変える暮らしと地域~新しい「公共」への道~」(225P/2004年5月)

●都道府県			
北海道	43	滋賀	12
青森	8	京都	8
岩手	6	大阪	12
宮城	9	兵庫	42
秋田	4	奈良	7
山形	5	和歌山	6
福島	10	鳥取	3
茨城	8	島根	5
栃木	4	岡山	7
群馬	6	広島	8
埼玉	14	山口	11
千葉	16	徳島	2
東京	29	香川	3
神奈川	19	愛媛	16
新潟	6	高知	6
富山	6	福岡	16
石川	8	佐賀	10
福井	4	大分	6
山梨	12	熊本	8
長野	28	長崎	6
岐阜	6	宮崎	1
静岡	13	鹿児島	8
愛知	13	沖縄	4
三重	9	全国	15
		合計	508

●地域	
北海道	43
東北	42
関東	96
北陸・甲信	64
東海	41
近畿	87
中国・四国	61
九州	59
全国版	15
合計	508

●開始年	
1973	1
1984	1
1991	1
1994	2
1995	1
1996	1
1999	8
2000	46
2001	84
2002	122
2003	99
2004	68
合計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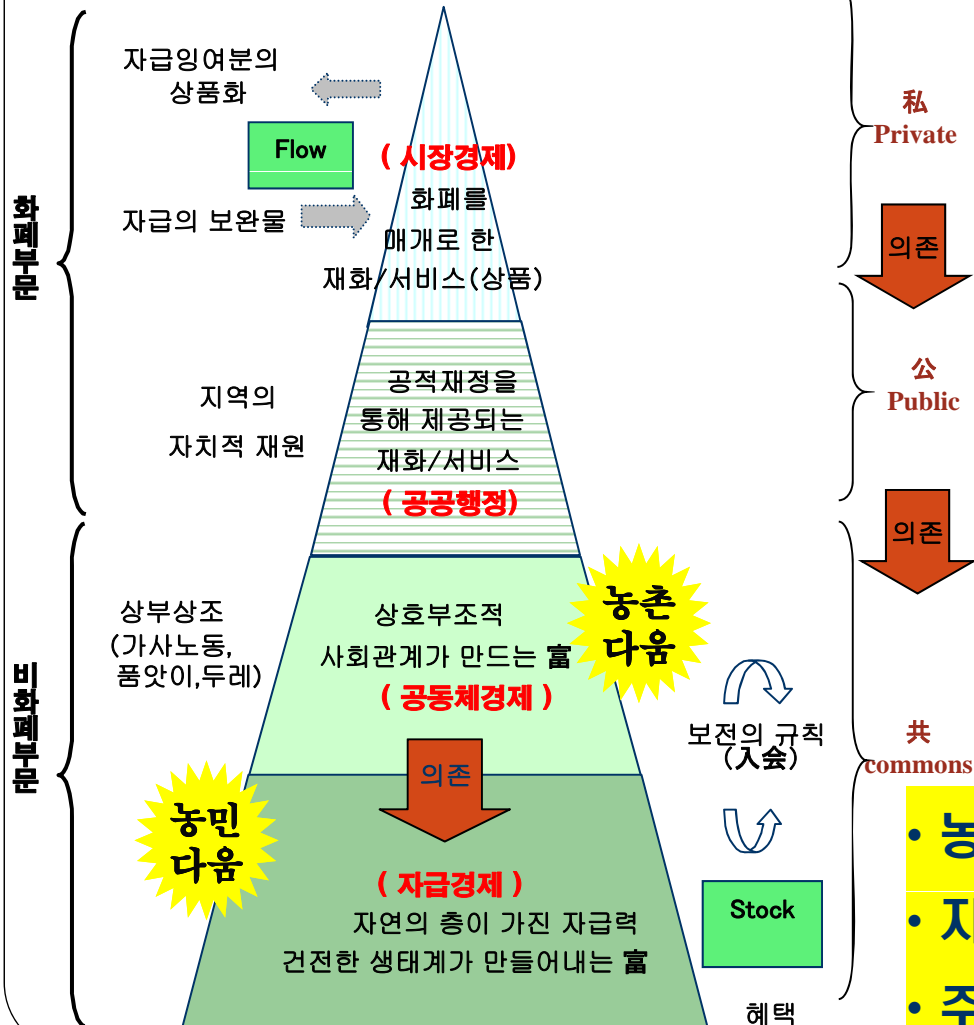
●運営団体	
任意団体	253
NPO法人	94
商工会・商工会議所	41
自治体	28
商店街組合など	23
学校	13
会社	10
社協・社会福祉法人	9
自治会	6
青年会議所	6
生協	4
農協	2
財団	2
寺院	1
合計	492

●分類	
紙券	276
通帳	95
チップ	19
備用証書	17
口座	17
磁気・ICカード	6
スタンプ・シール	3
合計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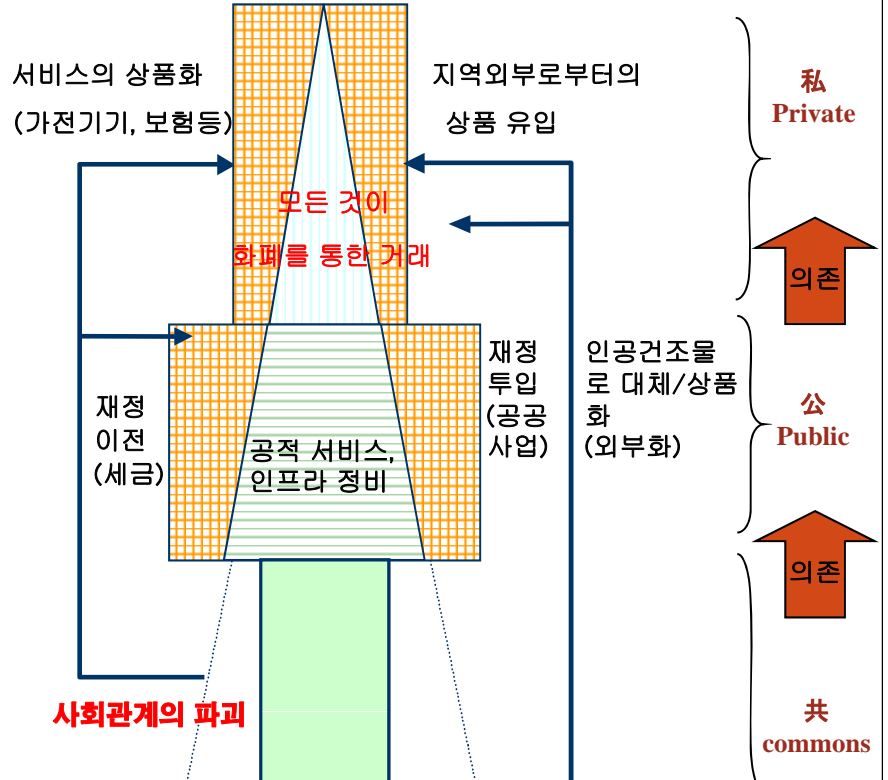
지역사회 발전의 목표

사회적 경제론, 코몬즈론 : 현금에 덜 의존하는 농촌사회 만들기

건전한 생태계가 지탱하는 경제



비화폐부분의 파괴를 통한 경제성장



- 농업의 6차산업화 = 농촌, 농민다움의 복원
- 지역자급순환경제 구축=부의 외부유출 막기
- 주민자치 영역 복원=행정의 비대화 예방

II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시스템

1) 마을 단위 사업 : 풀뿌리 주민자치 역량의 발굴과 강화

- 주민 주도, 상향식의 마을만들기 사업 : 2001년 으뜸마을가꾸기
- 마을 단위 사업의 5단계 구분

2) 마을(행정리)과 읍면, 시군의 위계별 활동 구분과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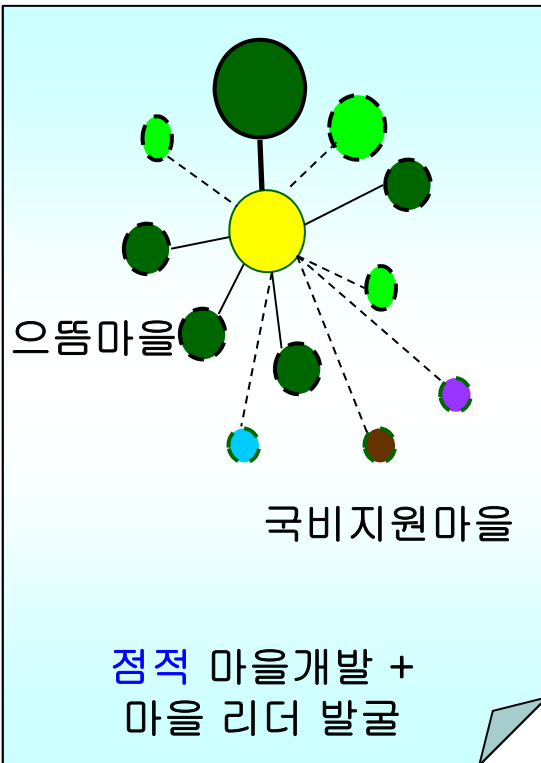
- 마을에서 읍면으로 확산 → 마을 네트워크 구축
- 경제 영역과 교육, 문화, 복지 영역으로 확산 → 민간 주도
- 시군 지자체의 중요성 : 생활정치의 기본 단위

3) 관련 정책 영역과의 강한 결합 : 행정 자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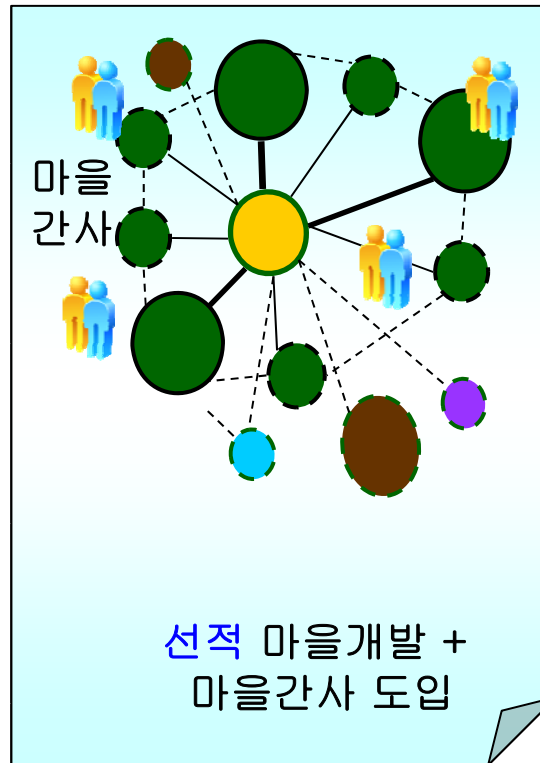
- 귀농귀촌, 도농교류, 주민자치(평생학습), 사회적 기업, 로컬푸드 ...

진안군 마을만들기가 걸어온 길(개념도)

기초형성기 (2001~04)



발전기 (2005~07)



네트워크형성기 (2008~10)



“점에서 선, 면으로 전략적 전개, 심화, 발전”

지난 10년간 단체장과 계약직 공무원이 바뀌어도 정책의 연속성 유지
=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가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

핵심 조직 강화와 단계적인 외연 확대

“신규 사업 발굴과 체계화”
“중앙 공모사업 최대 활용”

기초형성기 (2001~04)

발전기 (2005~07)

네트워크형성기 (2008~10)

추진
부서

기획홍보실 **군정기획단**

기획홍보실 정책개발담당
으뜸마을팀

전략산업과 **마을만들기팀**
<마을만들기 행정TF팀>

민간
조직

으뜸마을추진협의회
(형식적)

으뜸마을추진협의회
추진위원장협의회
마을간사협의회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도농교류센터/귀농지원센터
(민간 주도)

주요
활동

[주민교육]

- 지구별 순회교육
- 추진 조직 정비
- 으뜸마을 조례 제정
- 홈페이지 제작

[으뜸마을+마을간사]

- 으뜸마을 독자예산 확보
 - 특화발전 기반 마련
- 마을발전계획 수립
- 마을간사제도 도입
- 지구별 순회 주민교육
- 마을조사단 시작

[마을만들기+귀농지원]

- **그린빌리지 신규사업 도입**
 - 마을 사업 5단계 정립
- 민간단체 전용 사무실 확보
- 금요장터 + 로컬푸드 확대
- 면 네트워크 모델 확산
- 귀농1번지 프로젝트 착수
- 마을축제 지속 개최
-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정
- 지원센터 설립 구상, 시도

마을과 마을, 단체, 행정의 협력 시스템 구축

“마을이 지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시스템”

마을만들기전담팀
행정협조회의

행정 지원 체험 마을 사업

“농촌의 빈틈 메우기=일자리 영역”

활용

매개

마을

농업 생산

1

1

친환경농업
특화작물,

농산물 가공

+

×

2

2

농가공
공예품 개발

도농교류

3

3

숙박, 체험
직거래유통

민관협력체계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도농연대

다양한 상품 개발

6차 산업체계 구축

안정된 판매망 확보

마을 농산물 공동판매장

마을 네트워크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귀농1번지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민간조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전문기구

민간전문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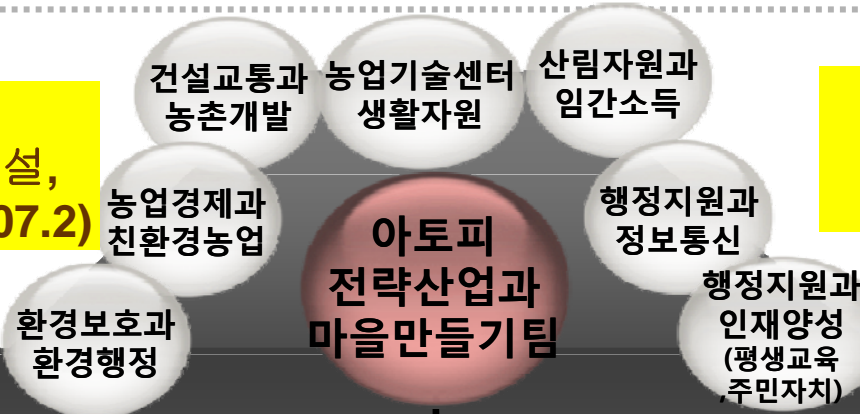
민간전문기구

다양한 민간전문기구의 체계적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

상호협력과 경쟁.
농촌 빈 영역 개척

행정

<행정지원체계>
마을만들기 전담팀 신설,
행정협조회의의 구성(20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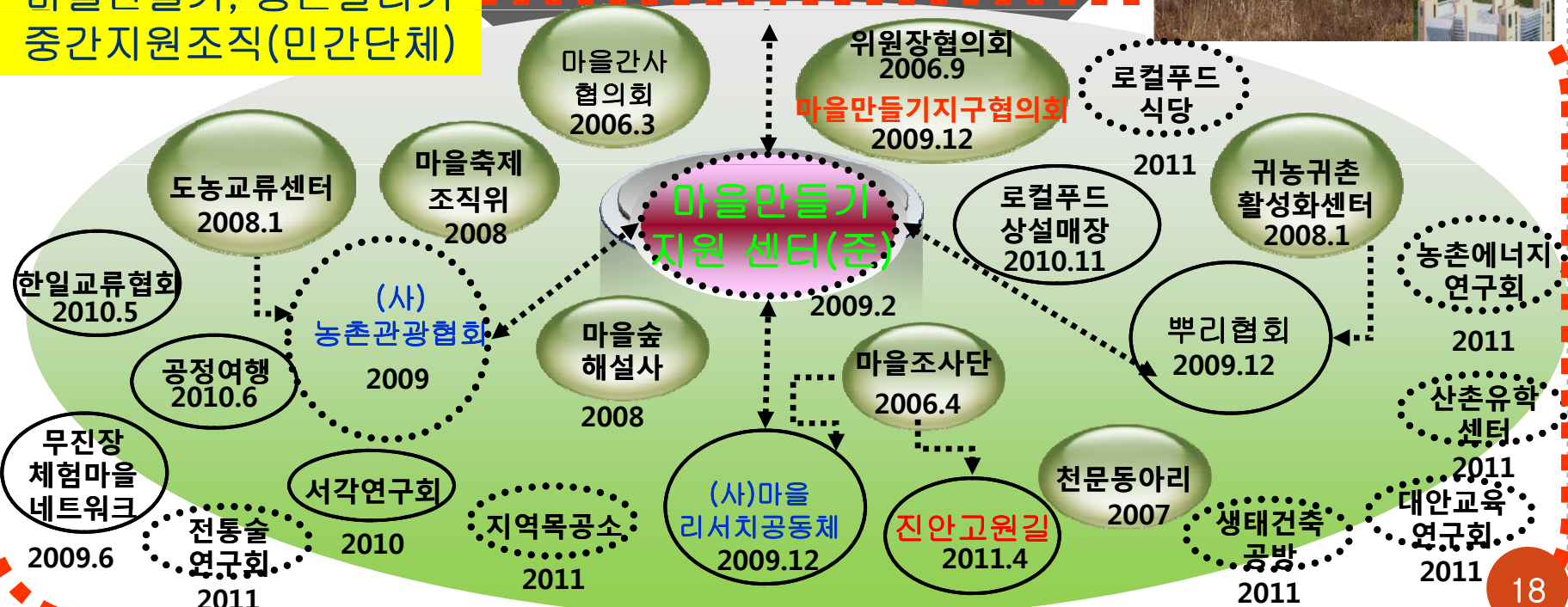
<민간단체 : 중간조직>
전문성 강화, 사업 집행
새로운 농촌창업 지원



마을만들기, 농촌살리기
중간지원조직(민간단체)

농촌형 인큐베이팅

민간



2009년 제18회 대산농촌문화상 농촌발전부문 대상 수상



2011년 지방자치20년 '좋은 변화상' 수상 →



Ⅲ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주요 사업

1) 마을 단위 사업 : 5단계 접근

- "알아야 행동하는 사람"(지식인) << "몸으로 실천하고 아는 사람"(농민)

2) 주민 교육, 훈련 + 도시민 인재 유치

- "시간과의 싸움". 귀농귀촌 정책과의 결합

3)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마을과 주민이 지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시스템"
- "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길"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주요 사업 유형

경제, 교육, 문화 영역으로
계속 확장중

1)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 단위 사업 활성화

- 그린빌리지, 으뜸마을 등 지자체 독자사업 도입
- 풀뿌리 마을의 주민 공동실천을 통한 자주적 훈련과 학습효과 모색

3)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방법론 개선

- 입체적 시각자료(지도) 활용, 실사구시형/자기주도형 학습 강화

2) 도시민 외부인재 유치를 통한 부족한 내부 역량 보완

- 귀농귀촌인 중심의 마을간사 제도, 귀농1번지 프로젝트

4)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과 경쟁구조 도입

- 마을 단위 활동의 한계 극복하며 네트워크형 시스템으로 발전 모색

5) 행정 및 민간의 협력체계 정비

- 행정조직 정비, 민간조직 활성화 등으로 민관의 소통과 협력 분위기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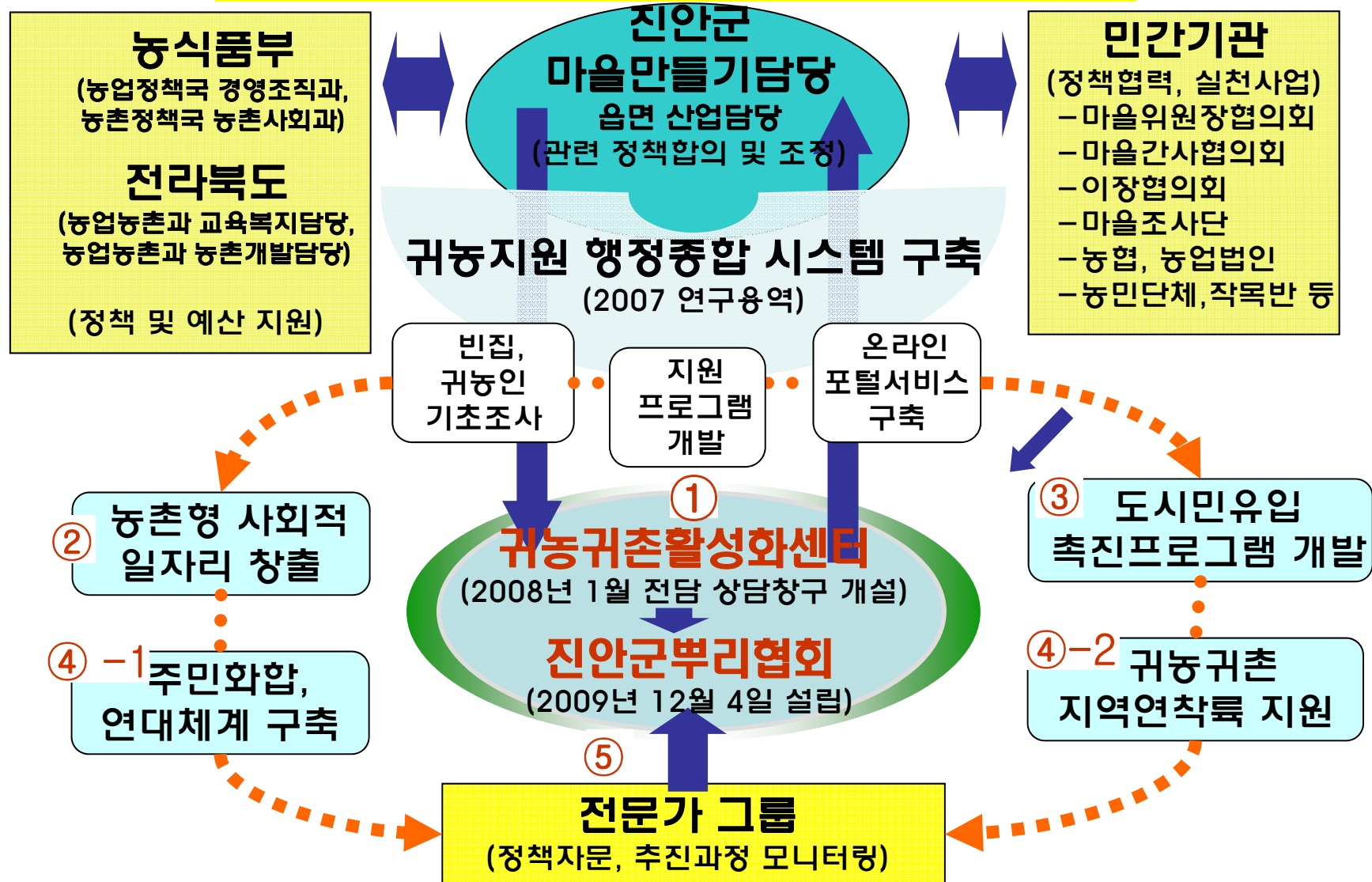
마을 단위 사업의 5단계 구분 : 진안군 방식

주민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발전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사업 : 농업 생산외 영역 활성화 (2007~)

외부 인재 유치를 통한 도농상생 발전 체계 구축



“행정이 인재 유치를 위한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시스템 구축에 집중”

기존 사업 경험 →

**귀농귀촌정책
5대 원칙** → 지역발전 (마을만들기) 인재 유치

■ **1) 이미 정착한 귀농귀촌인 우선 : [집토끼] 지키기**

- 살고 있는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재]탈농 예방이 우선과제
- 성공적인 정착이 새로운 귀농귀촌인을 불러들이는 파급효과 중시
- 살고 있는 주민이 행복하면 누구라도 살고 싶은 마을이 된다!

■ **2) 귀농귀촌인의 전문성 존중 : 농촌의 파이 키우기**

- 진안에는 농지가 협소하다는 객관적 현실을 인정
- 농업 생산 자체보다 가공, 유통, 교육, 문화, 복지 등 미흡한 분야를 보완
- 전문성에 기초하여 기존 주민 생산/생활 영역과의 ‘틈새’ 영역 개척

■ 3) 직접적인 현금 보조 배제 : 지역주민과의 갈등 회피

- 피해의식이 강하고 객관적인 정보 소통이 부족한 지역 풍토 인정
- 직접적인 현금(보조) 지원은 지역주민과의 심각한 갈등 초래
- 현금보다 좋은 정보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에 주력

■ 4) 주민과의 화합 중시 : 귀농귀촌인을 환영하는 풍토 조성

- 기존에 형성된 귀농귀촌인에 대한 나쁜(혹은 왜곡된) 이미지를 인정
-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과 화합하며 생산적인 방향 모색
- 귀농귀촌인을 환영하고 도와주는 지역 풍토 조성

■ 5) 일회성 이벤트 행사 지양 : 중장기 시스템 구축 지향

- 당장은 지역주민의 반발과 갈등이 있더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설득
- 귀농귀촌 정책의 중장기 전략에 기초하여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시스템 구축

■ 귀농귀촌인의 정착 추이 [1997.1.1 이후 정착자 누적집계]

- 2007년 3월 조사 : 총 229세대 499인 (세대당 2.2인)
- 2007년 12월 조사 : 총 282세대 557인 (세대당 2.0인) +53세대 (사후파악 포함)
- 2008년 12월 조사 : 총 386세대 871인 (세대당 2.3인) +104세대 (사후파악 포함)
- 2009년 12월 조사 : 총 545세대 1,285인(세대당 2.4인) +159세대 (사후파악 포함)
- 2010년 12월 조사 : 총 592세대 1,455인(세대당 2.5인) +62세대
- **2011년 6월 조사 : 총 636세대 1,568명(세대당 2.5인) + 44세대**

집과 땅
→ 사회적
한계 상황

- * 매월 상담, 방문건수 100건 이상
- * 귀농귀촌인 **세대주의 50%가 50세 이하** (평균 연령 51.7세)
- * 유형 : U턴(귀향) 42.9%, **I턴(무연고) 57.1%**
- * 현재 상태 : 단신이주 31.6%, 부부 거주 22.0%, **가족이주 46.4%**
- * 직전 거주지 : 서울 등 수도권이 절반 가까움

매년 1백가구 정착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속도 조절하는 추세



• 진안군 귀농귀촌 세대의 전형 모델

= 40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연고 없는 곳으로 내려와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영역과 결합하여

농업과 농촌을 살찌울 수 있는 신규 영역 개척중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 실과소 협력

1) **숲해설가반**(평생학습) : 2005년 개설

2) 한방약초 벤처대학 : 2007년 개설

3) **아토피제로**학교 : 2008년 개설

4) **마을숲해설사** 양성과정 : 2008년 5월 개설

5) 마을만들기대학 : 2008년 6월 개설

6) **향토해설사** 양성과정 : 2009년 1월 개설

7) 귀농귀촌 **생태건축**학교 : 2007년 10월 개설

8) 공동체라디오. **미니FM**, 인터넷방송 : 2009년 6월

9) 초보농군 농기계학교 : 2009년 11월

10) **로컬푸드** 약선요리 식당 창업(1차) : 2009년 12월

11) 사회적 기업, 농촌창업학교 (로컬푸드, **대안여행**, 공예공방) : 2010년 2월 개설



새로운 분야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최대한 제공

•스스로 찾아가는 학습활동 지원 (**지역리더교육**)
예) 대안여행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등

전국대회 및 마을축제 개최 : 행사 운영을 통한 학습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지역 '봄' 조성

-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 2007,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 제1회 마을축제(3회 전국대회) : 2008,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 제2회 마을축제(4회 전국대회) : 2009, “Go! 鄉,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삶”
- 제3회 마을축제 : 2010.7.30~8.8, “마을과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 제4회 마을축제 : 2011. 7. 28(목) ~ 8. 3(금), “三/百/村//千/里/香”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삶

제4회

진안군 마을축제

三/百/村 千/里/香 마을과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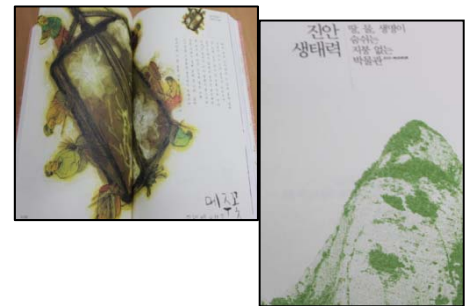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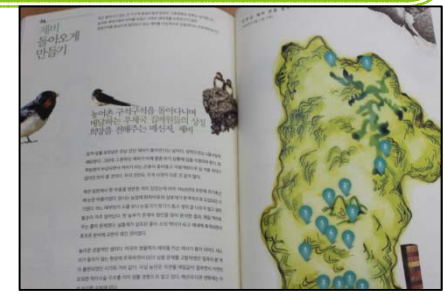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 객관적 사실조사, 창업 기회 제공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 예산 출처 :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농식품부)
- 총예산 : 매년 2천만원 내외, 공모사업 형식 매년 20여건 접수
- 도입 시기 : 2008년부터 매년 시행
- 주요 지원 실적 : 벼룩시장, 산촌유학, 흙건축, 건축매뉴얼, 두루반상, 별자리, 전통주, 오미자 포장재, 일본인 관광가이드, 자연화장수, 잡지박물관, 마을길 걷기 지도, 진안 생활사 다이어리 등 100~500만원
- 지원 효과 : 재주 있는 귀농귀촌인 발굴 및 지역사회 홍보 기여



자연약초 화장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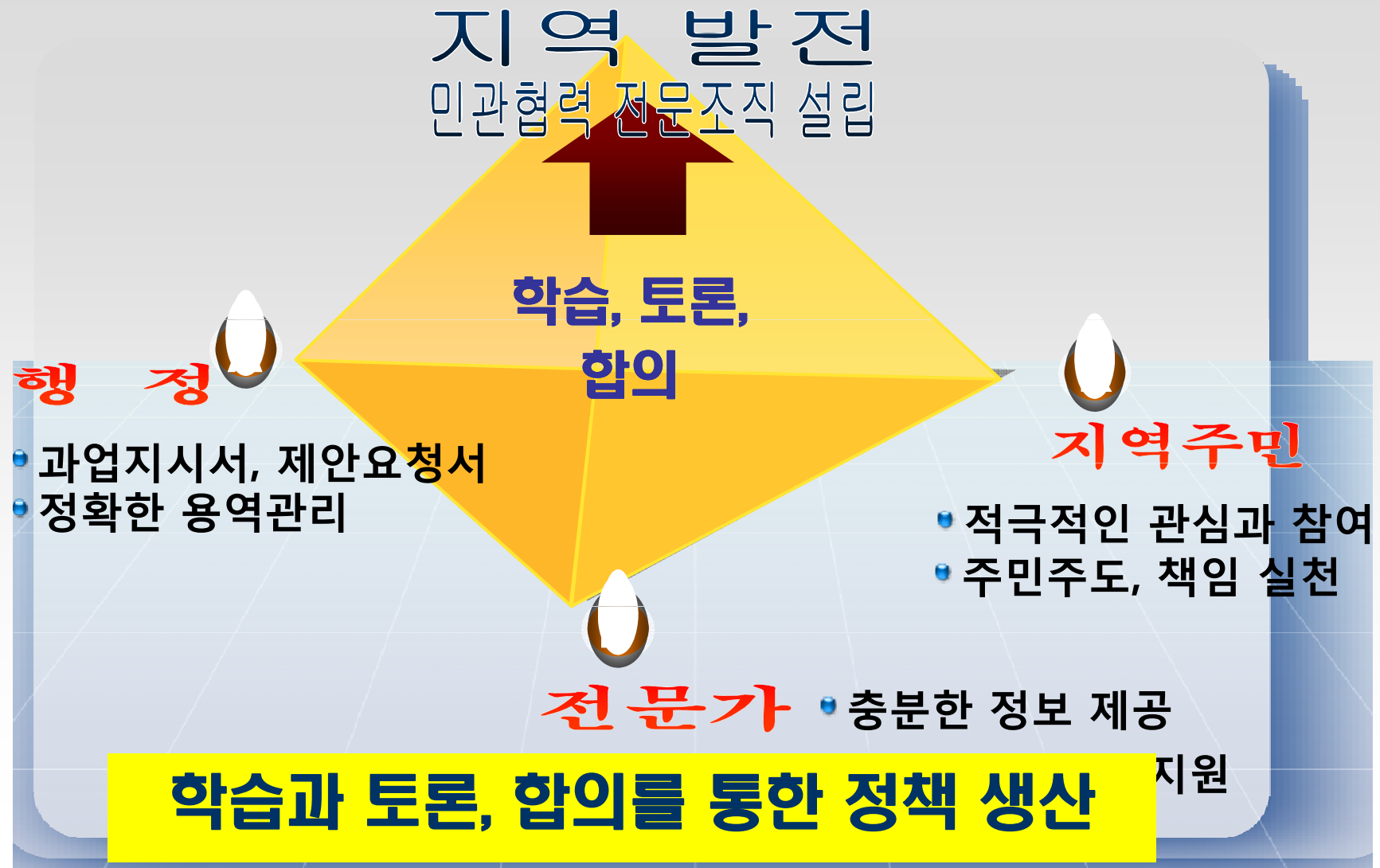
잡지박물관 기반 조성

마을길 걷기 지도

진안 생활사 다이어리

주민참가형 연구용역 :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

적용사례 : 교육, 도농교류, 귀농귀촌, 사회적 기업, 마을만들기 등



을조사단 : 문화 콘텐츠 발굴과 농촌창업 지원

“향토사 연구는 마을만들기의 출발점”

“농촌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마을에 살면서 조사”

에코뮤지엄 구상 : 농촌은 “지붕없는 열린 박물관”

주민자치위원회 살기좋은백운만들기 분과





全北中央新聞 2007년 10월 10일 수요일

면소재지 간판 개선 사업 = 농촌형 간판 모델

농촌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강화
“마을과 마을의 연계지점”



상업주의 틀 벗은 '문화 간판'

■창간기획

진안 백운 원촌마을 상호마다 색다른 시도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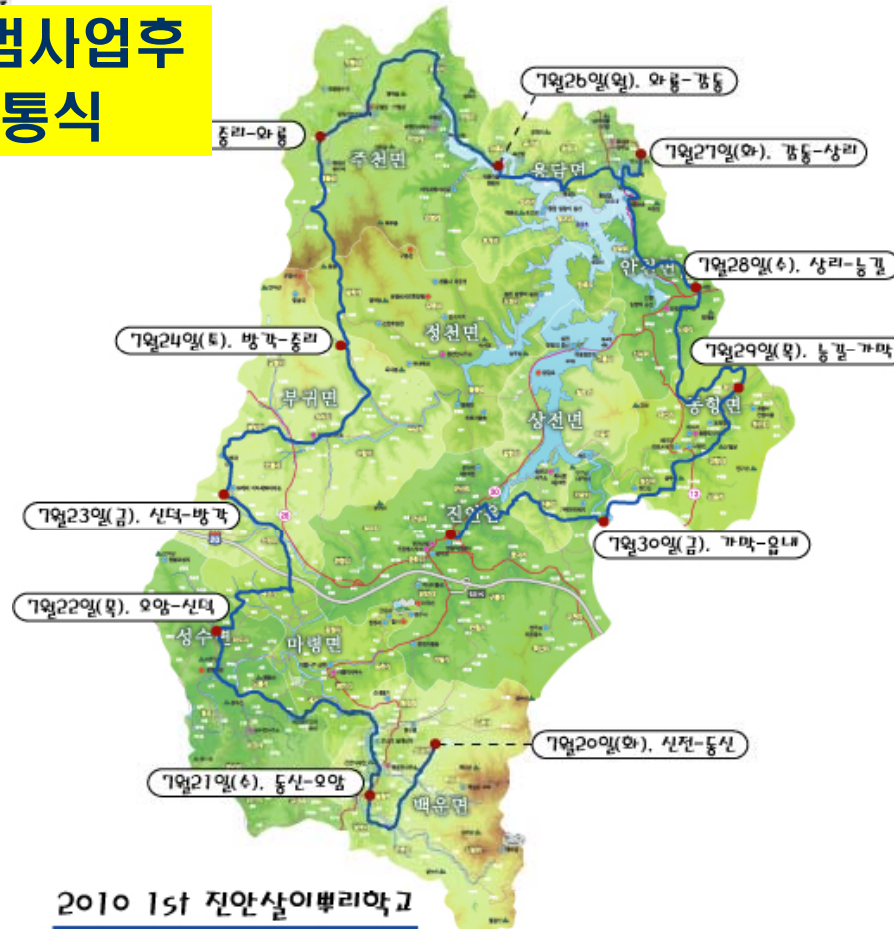
들부터 카메라로 이곳 저곳을 찍어가는 일도 늘었다. 그렇다고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간판에서 시작된 변

진안고원길 프로젝트 : 문광부 생태관광 10대모델사업 선정

고개너머 마을 잇는 **진안마실길** 을 걸다.

첫 번째 마실 : 7월 04일(토요일) 09시-18시, 영모정(백운면 노촌리) ~ 신전마을(백운면 운교리).
 두 번째 마실 : 7월 11일(토요일) 09시-18시, 신전마을(백운면 운교리) ~ 중평마을(성수면 도룡리).
 세 번째 마실 : 7월 18일(토요일) 09시-18시, 중평마을(성수면 도룡리) ~ 외파치마을(부귀면 신저리).

**진안고원길 = 3년 시범사업후
2011. 7. 30(토) 개통식**



마을과 마을이 이어져 새로운 진안을 만든다



마을박물관 만들기 프로젝트

마령면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





동향면 학선리 마을박물관



귀농귀촌인의 활약으로 전체 마을로 계속 확산중

IV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10년 구상

“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길” → “가시적 성과 도출로 주민 참가 촉진”

1) 로컬푸드 사업 : 경제적 수익 확보와 마을 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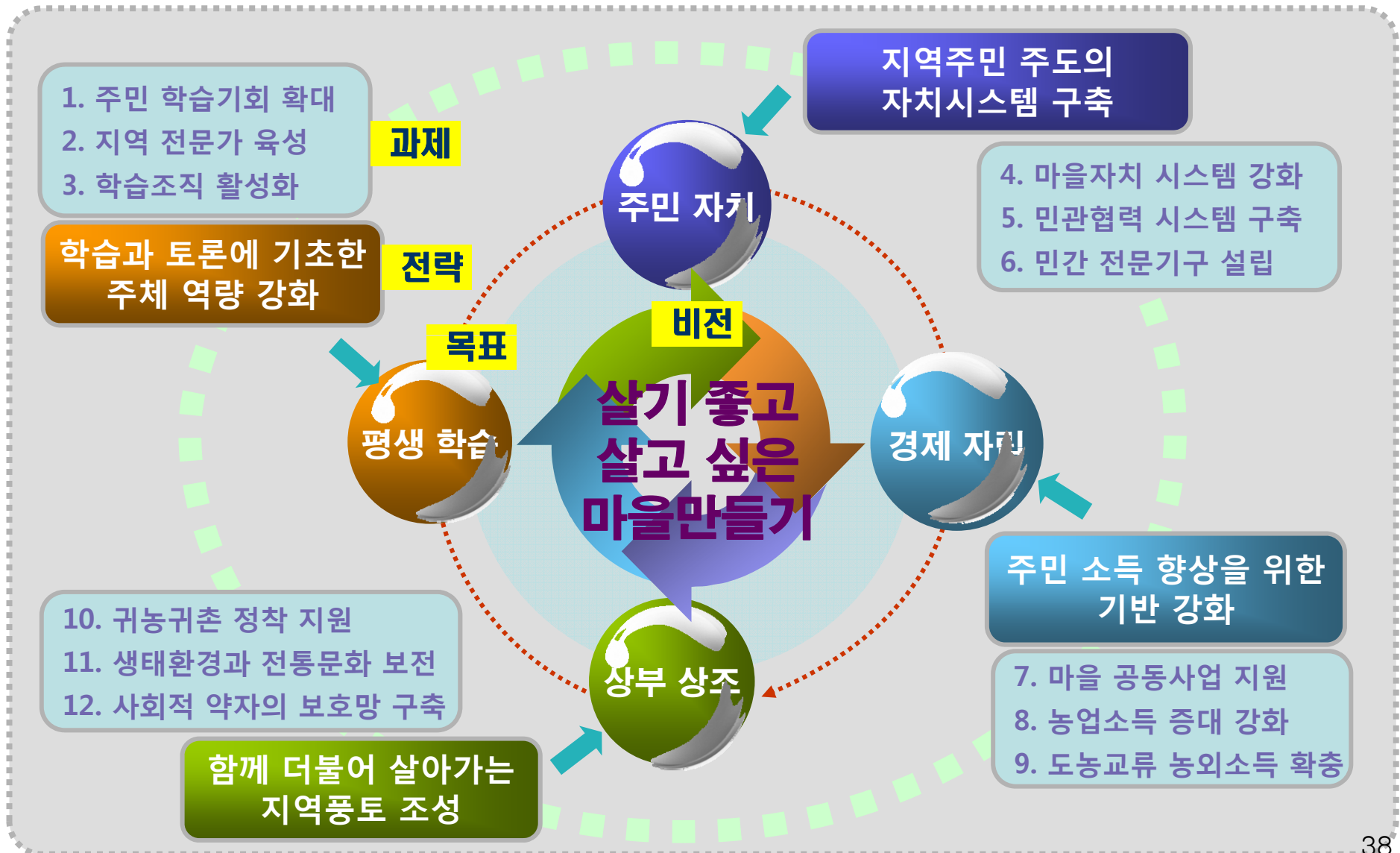
- 소농/가족농/노인농/생태자급농의 보호 : 마을복지
- 다품목 소량생산의 농업 구조 인정 : 농협과 별개의 유통망 확보

2) 지원센터 설립 : 공간적 핵심거점의 확보

- 마을만들기의 상징공간 확보 : 농촌 지역개발의 인큐베이터
- 인적 자원의 공급 창구, 재생산 기지

→ 사회적 경제, 6차산업화, 농상공연대 등의 논의와 체계적으로 결합

1.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조직 개편(2011.1.29)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한 사람의 열 걸음”

수익사업 개척
마을/지역 환원

마을법인, 작목반 등
소득사업 조직 참가

약20조직

공급자(생산자) 협의회
(법인 대표, 작목반장, 개인 등 참가)
- 월 1회 개최, 운영 협의, 정산 등 -

농어촌공동체회사
2011년 독립 법인화

로컬푸드 사업단

공익 영역

상설매장

도시직거래

수익 영역

약선 식당

전자상거래

협력관계

“열 사람의 한 걸음”

협의, 방향 설정
논의, 의사결정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전북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 연1회 정기총회 -

마을위원장이
마을 대표
자격으로 참가
약30지구

감사

자문위원회

위원장 정기회의
(전체 위원장 참가)
- 분기별 1회(연4회) -

약30명

운영위원회(7명)
(회장, 부회장1, 단장2, 위원3)
- 월 1회 정기회의 -

사무국장
간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추진단

단장 : 황관선
(안천 지사)

지구협의회 조직개편(2011.1.29)

사업 전담 단장 선임

2. 로컬푸드사업단 : 농업회사법인 '진안마을' 주식회사 설립

매주 금요일 금요장터 참여(지산지소운동)
군청광장(2008. 5. ~2010. 10., 총91회 운영)



소농, 가족농을 위한 마을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 구축

용담면 와룡마을 사례

- ▶ 용담댐 건설로 11가구가 1996년 집단이주 조성. 2008년 현재 23가구 48명
- ▶ 지산지공 운동, 임간소득 개발, 마을영농조합법인 설립 등의 마을협동운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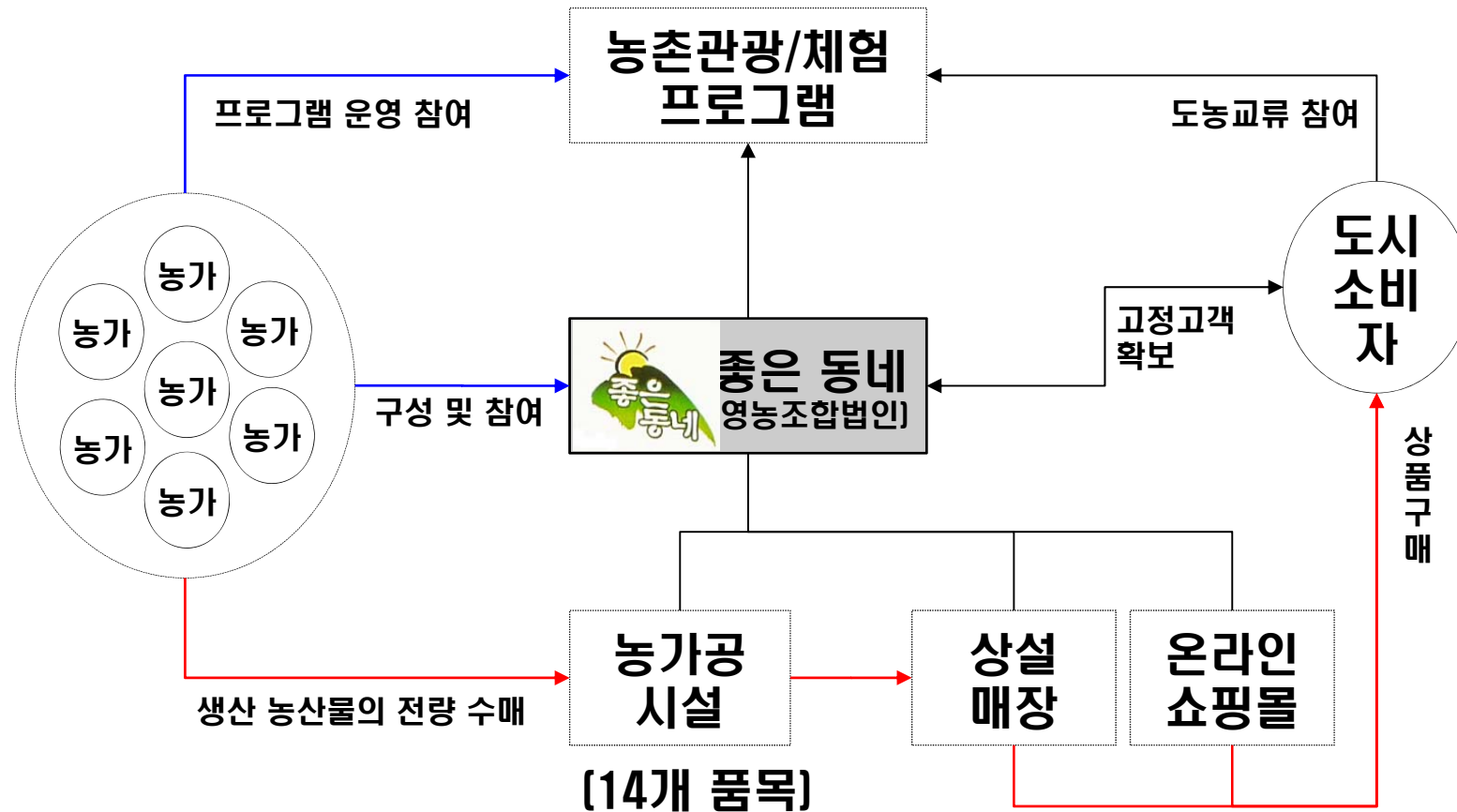
2005년도 작성



설명회



▪ 와룡마을의 6차 산업화 모형



“함께 모여 마을 농산물의 공동 유통을 고민하다”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1	09.2 : 마을 농산물, 로컬푸드 사업을 최초 제안
2	09.4 : 위원장협의회 상근간사 채용, 본격 검토 착수
3	09.5~10 : 위원장 정기회의 검토(4회)
4	09.11 : 전라북도 사회단체 등록
5	09.11 : 단체장/의원 필요성 정식 제안(일본 연수) ★
6	09.12~10.4 : 직매장 장소 지속 물색
7	10. 4 : 제1회 추경 예산 확보 (8천만원)
8	10. 9 : 제2회 추경 예산 반납, 진안시장 결합으로 대체 결의
9	10.11 : 진안시장 중앙광장에 상설매장 시범 개설
10	11. 1 : 지구협의회 조직개편, 로컬푸드 전담 사업단 신설
11	11. 3 : 로컬푸드사업단 사업 설명회 개최
12	11. 3~4 :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내부 학습 등 진행
13	11. 5~6 : 발기인총회, 출자자 모집(2회), 1억원의 출자금 확보 ★
14	11. 7.8 : 농업회사법인 진안마을 주식회사 창립총회 개최

제2009-1-전라북도-103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1. 단체명칭 :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2. 소재지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34번지

3. 대표자

- 성명 : 강주현
- 주민등록번호 : 570427-1522818
- 주소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103번지

4. 주된사업

- 마을만들기 대학 운영 및 마을간사 교육
-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및 마을축제 지원
-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재반 지원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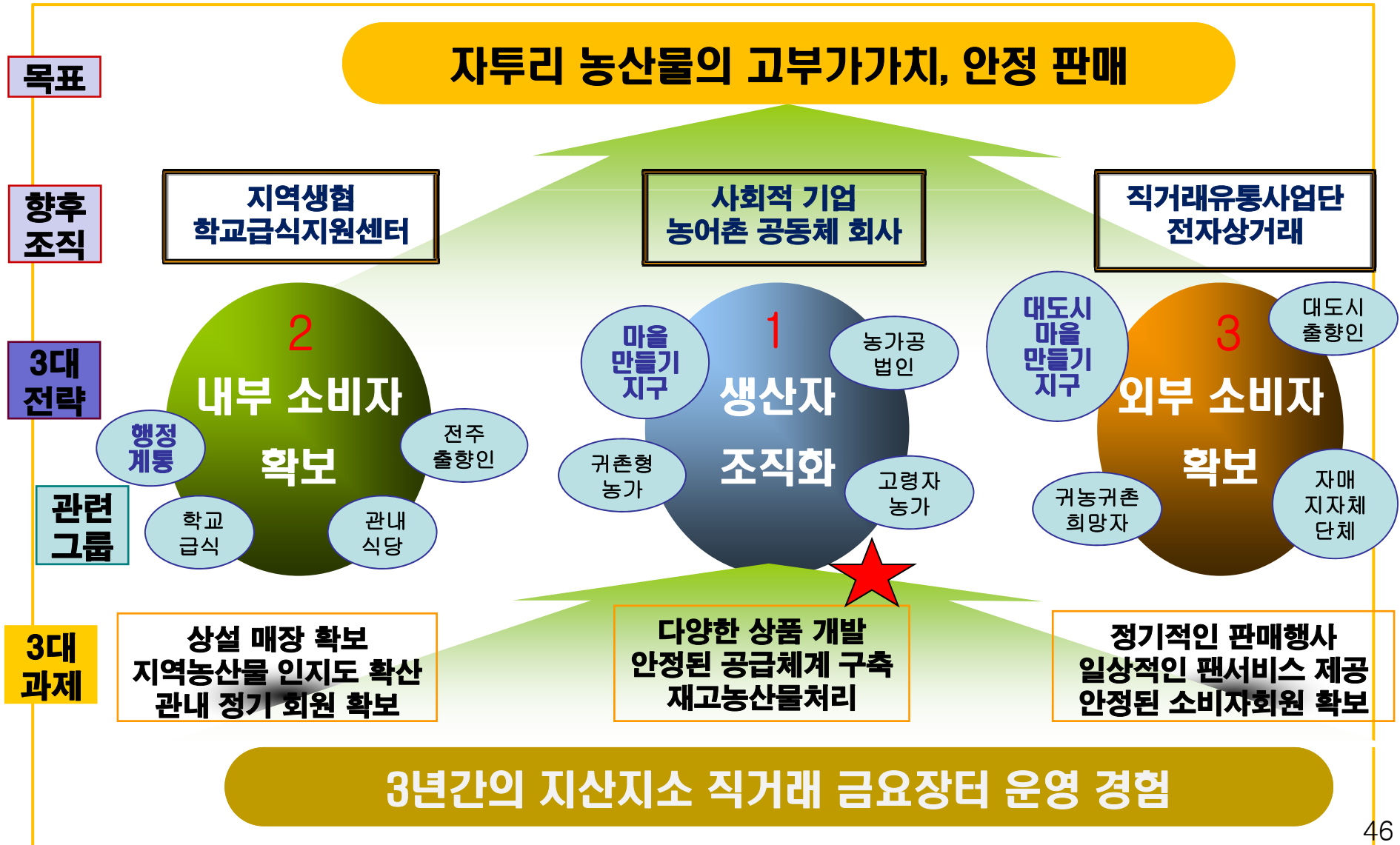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9년 12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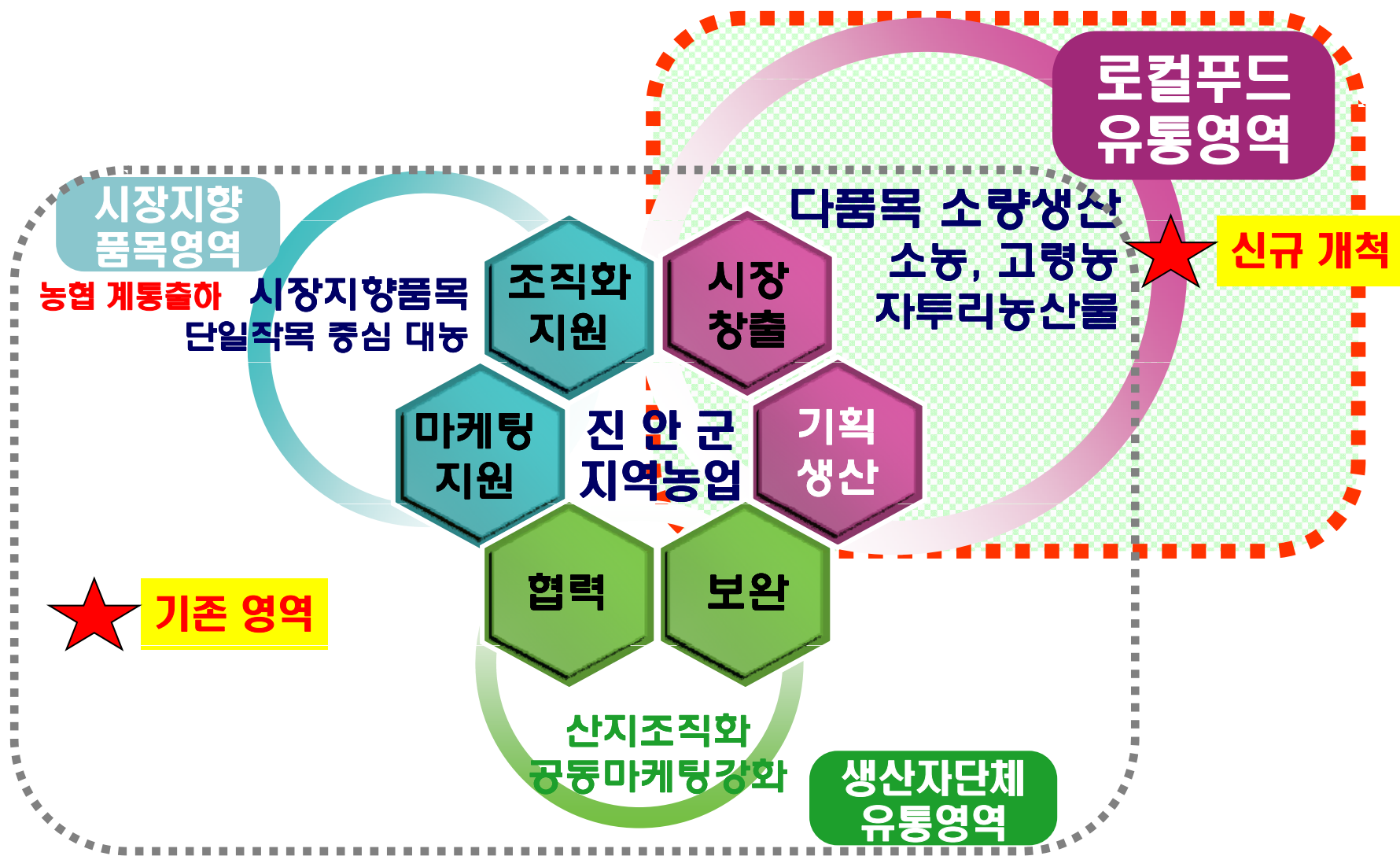
전라북도지사



금요장터 3년 경험으로 세운 로컬푸드 사업의 추진전략과 목표. “소농, 고령농, 가족농을 살리자”



로컬푸드사업단의 주요 시장 영역 : 지역농업의 새로운 영역 개척
“소농, 고령농 자투리농산물로 주민 소득 향상 역역을 새로 열다”



자료 :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제공자료를 근거로 재작성

진안시장내 마을 농특산물 직거래 매장 운영 (2010. 11.부터)



상설매장 사례 모델 : 일본 아야정 혼모노센터

“다양한 상품 개발, 지역마케팅 경험의 축적”

手づくり本物 Center

- 1989년 개설, 연간매출:3억5천만엔
- 상주직원 3~4명 외 파트타임 약간명
- 수수료:농산물 10%, 가공품 15%, 기업제품 20%
- 출하농가: 소규모 고령자 농가중심
(대규모 농가는 생협 혹은 계통 출하)



진안마을주식회사 창립 총회(2011. 7. 8)

100여명의 주주가 1억원을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진안군 농민주주 '마을 주식회사' 창립

로컬푸드 사업 중심 소농·가족농 보호 등 안정 유통망 확보·체계적 도농교류 등 전담

주주 100명 출자금 1억원 모아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국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활동으로 유명한 진안군.

이번에는 주주 100명이 출자금 1억원을 모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등이 이뤄졌다.

마을이 경제원이 될 수 없는 영농조합법인의 제한요소로 농업회사법인 형태를 취하고 또 합동조합법이 제정되지 않았기에 주식회사로 정했다.

주주로는 21개 마을과 11개 단체, 68명의 개인이 참여했다.

법인의 모태가 되는 조직은 진안군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이하 마을협의회)로 지난 3년간 금요강터 외화 운영과 일본 아자정 시장 3회, 진안시장 내 상설매장 개설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마을협의회는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로컬푸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립된 법인은 향후 로컬푸드 사업을 중심으로 마을의 소농, 가족농을 보호하고 지역 내 농가공 활성화와 안정된 유통망 확보, 체계적인 도농교류 등을 전담하게 된다.

하반기부터는 농산물 꾸러미, 배달 사업을 시범 시작하고 내년부터 약식식당, 반찬가게, 전자상거래, 대도시 직거래 판매 행사 등도 추진한다.

또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꾀하는 공동체회사를 지향, 수익금 전액을 지역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 확보를 위해 독자브랜드 상품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산간지역 특성을 반영, 산나물세트와 집콕세트를 주력상품으로 잡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개최될 제4회 마을축제에서부터 산나물세트류 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주주로 참여하는 마을과 농민, 사업자 100명과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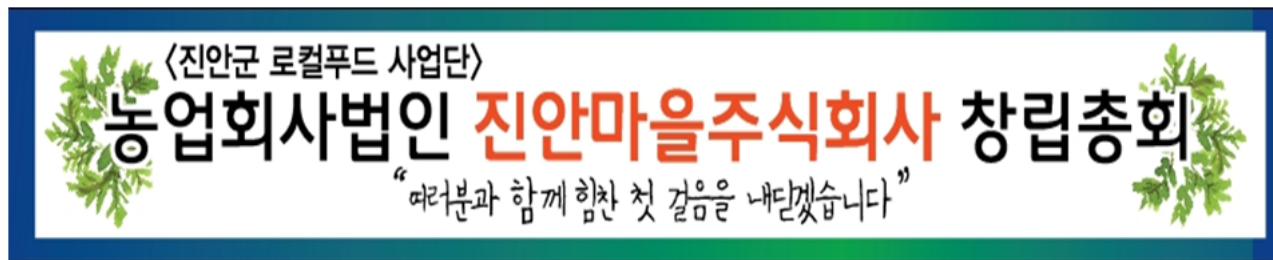
진안군은 21개 마을과 11개 단체, 68명의 개인이 주주로 참여해 총 100명이 출자금 1억원을 모아 농업회사법인 진안마을주식회사를 창립했다.

빈들이 참석해 열린 분위기 속에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마쳤다.

대표이사로 예정된 강주원 로컬푸드 사업단장(용담면 와룡마을)은 "진안군 마을만들기 10년의 경험과 출자해 주신 주주들의 뜨거운 정성을 모아 안전한 농특산물의 안정된 유통망 확보로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 송영선 진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농민들이 자발적 의지로 출자금 1억원을 모았다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전용성기자/bogross@nnew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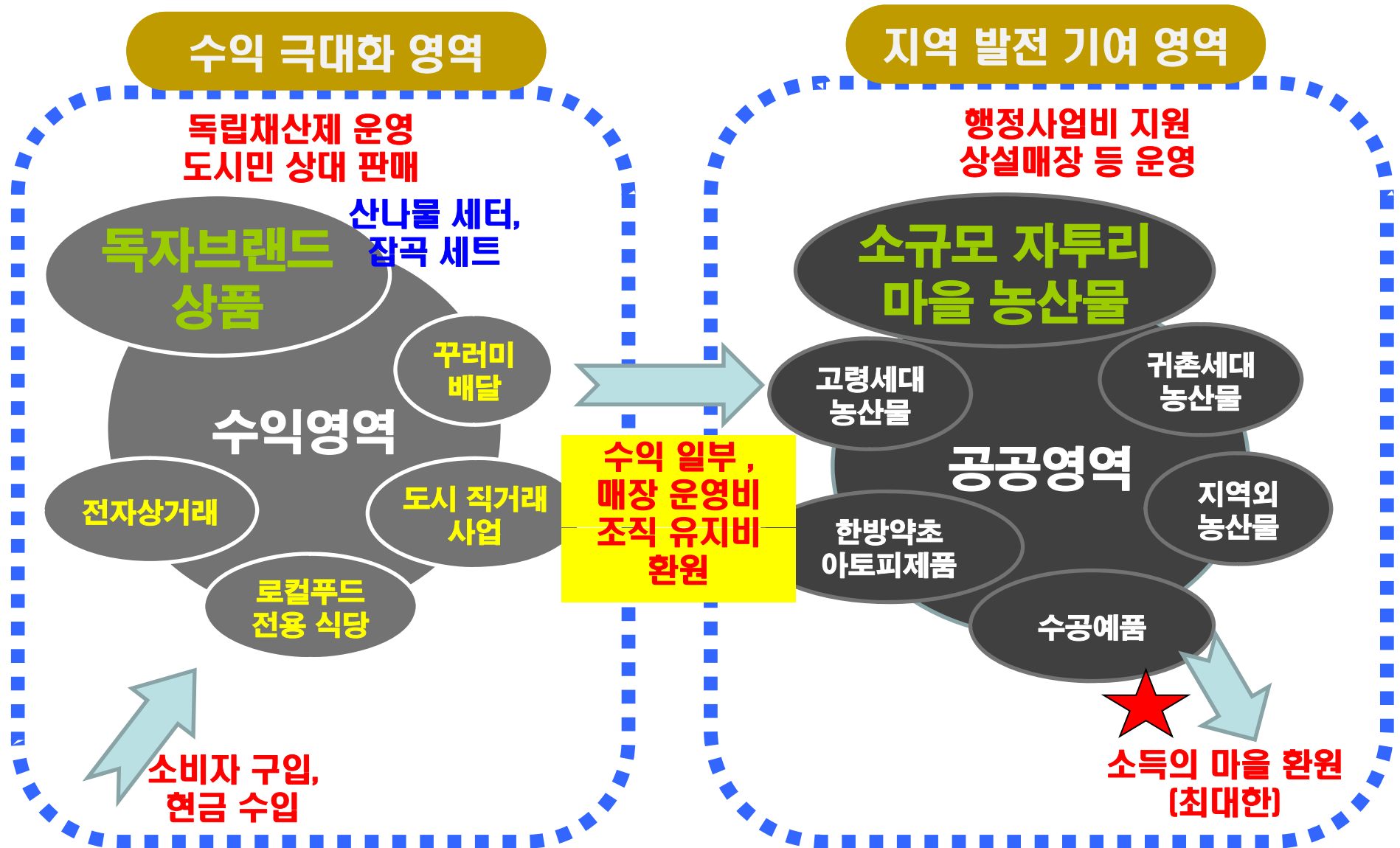
출자내역

구분	명	출자금액(원)
뜻있는 주민	68	53,000,000
지역단체	11	30,100,000
마을, 위원장	21	16,900,000
계	100	100,000,000

임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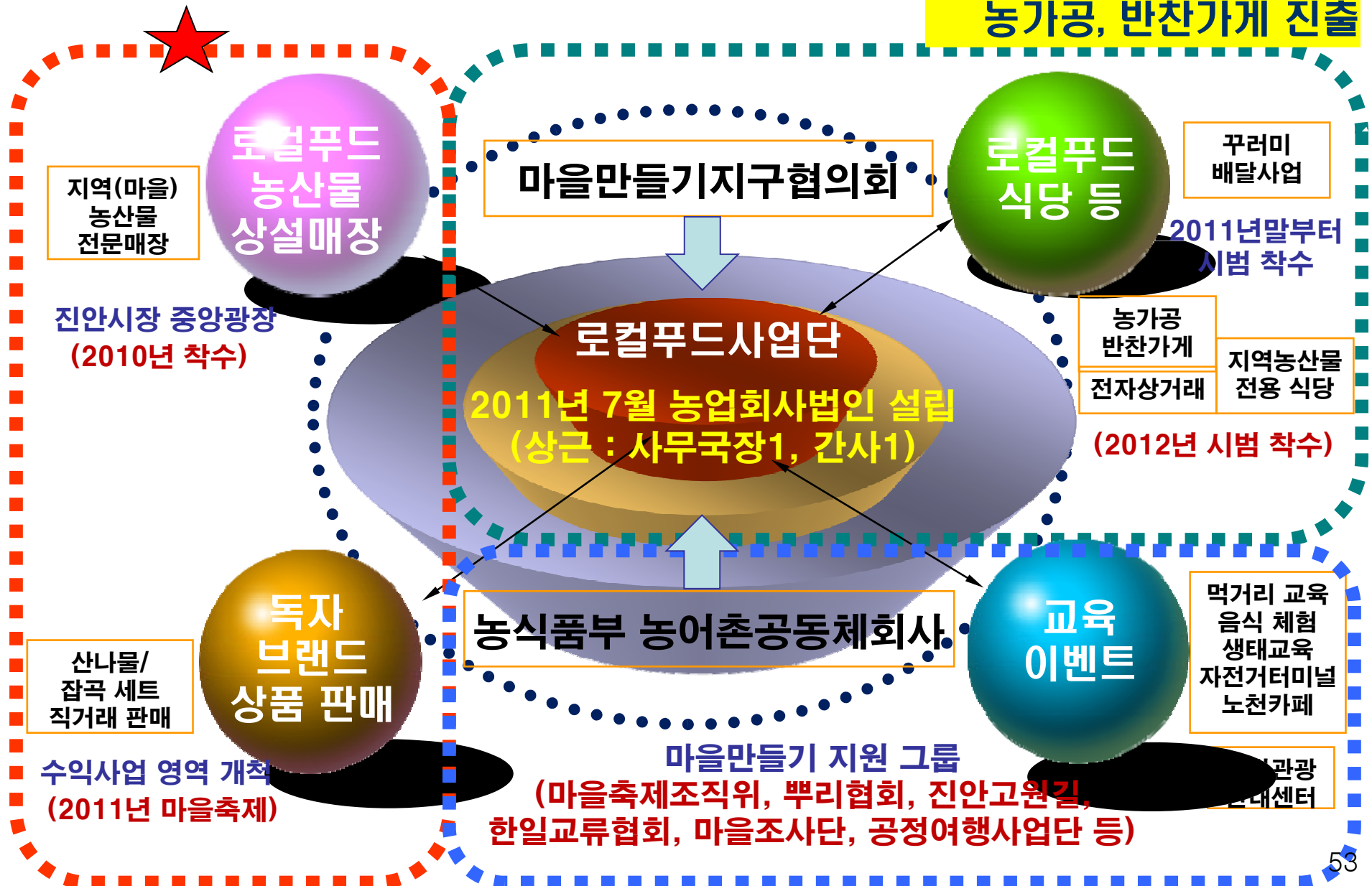
강주현 대표이사	용담 와룡
최영복 이사	성수 오암
안기조 이사	상전 신연
엄삼섭 이사	진안읍 외오천
정해용 이사	안천 노채
천춘진 이사	애농 대표
조 철 이사	마령 계서리
박 훈 이사	(주)품 사무국장
박주홍 감사	정천우체국장
이재우 감사	(주)참식품 대표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 마을 회사를 준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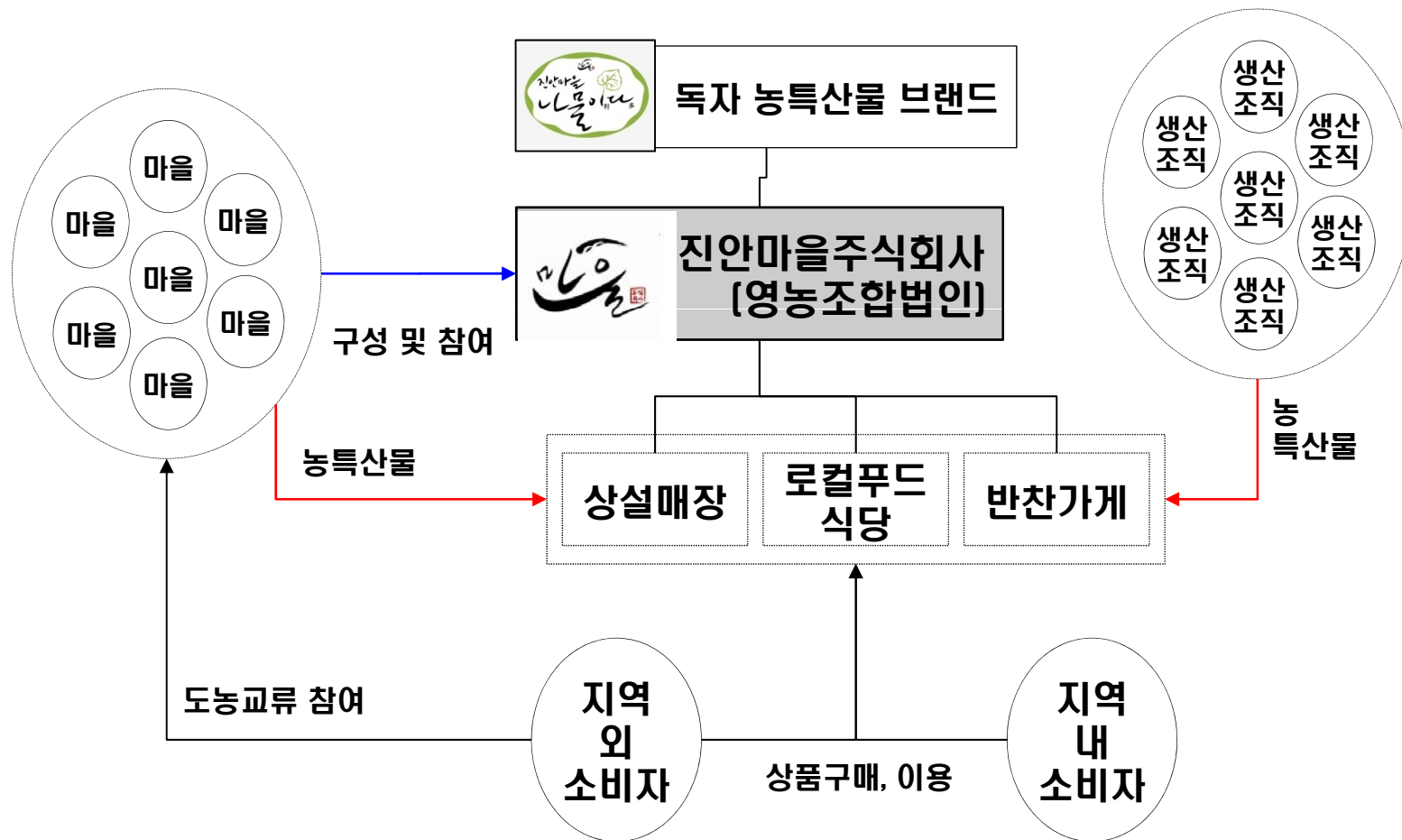


“진안마을 주식회사의 사업영역은 너무 넓다”

2011년 독자브랜드사업
2012년 꾸러미배달사업
농가공, 반찬가게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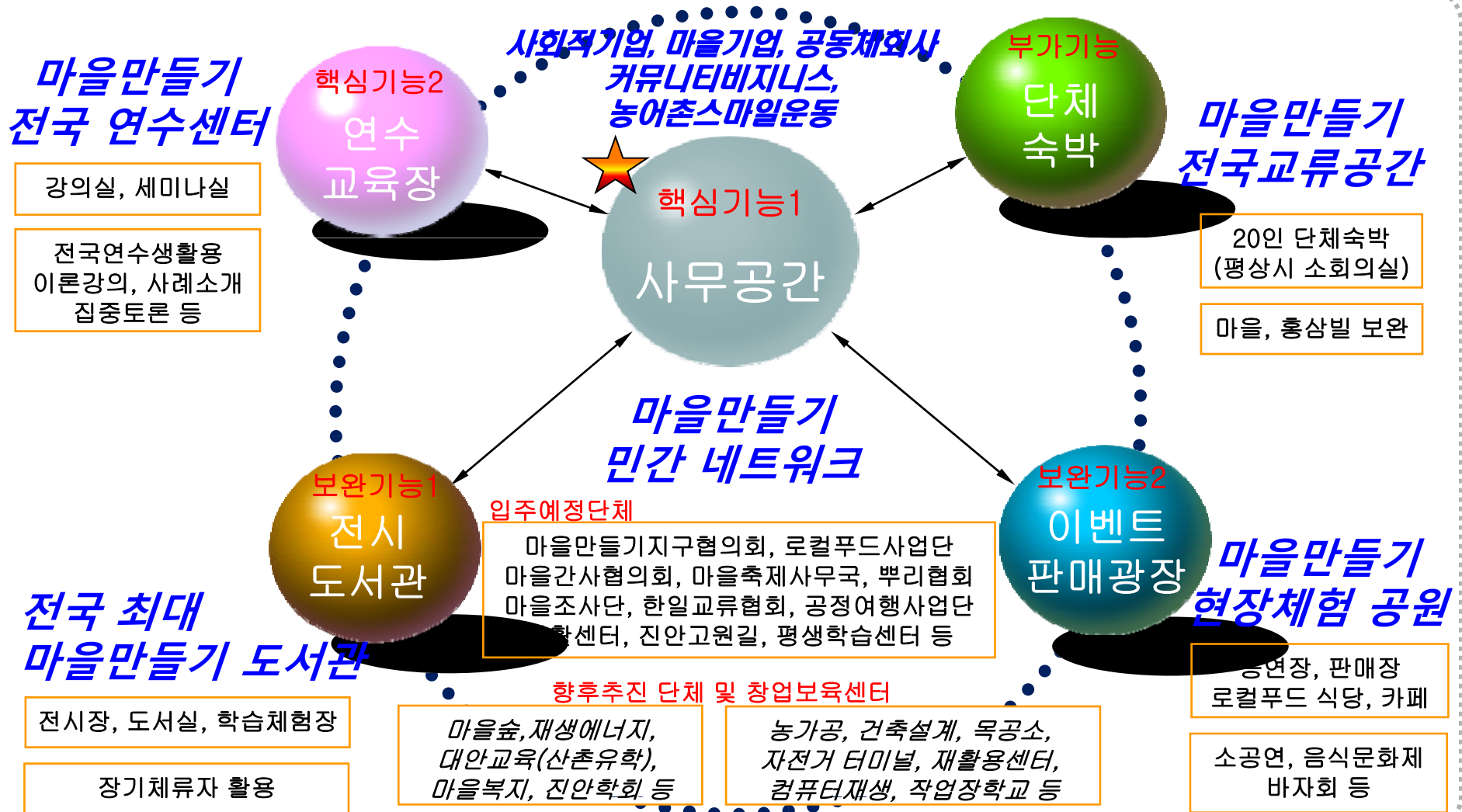
진안마을 주식회사의 6차 산업화 모형



3. 전국 최고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립

운영법인 및 부설연구소 신설

10년 활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마을 네트워크 핵심 거점공간 구축



1.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의 집적화
2. 진안읍 경제 활성화 적극 기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원칙

3. 매력있고 특색있는 장소의 리모델링
4. 별도 민간법인 설립과 독립채산제 운영

진안읍소재지 중심발전축



주축 : 북부마이산-생태공원

2차축 : 진안IC-진안로터리



2011년 제5회
진안군 마을만들기대학



마을과 마을의 핵심 거점공간 만들기

주 관: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후 원:  진안군

개강식: 2011.5.12(목) 19:00,

매주(격주) 목요일 총12회

장 소: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대학 운영과 병행
_학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설립



6회차(7.14) : 조별 작업 결과 발표 및 공청회 개최



농업기술센터 공간 활용계획(안)

6차산업화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농촌창업보육센터
마을만들기 테마공원

판매시설
(향후 신축 검토)

시설창고

로컬푸드사업단
(선별, 포장, 보관)

마이산
자전거길
도보길

2층:강당,소회의실 등
1층:사무공간
지하:로컬푸드식당

부속사2

부속사1

본관

전시도서관
숙박동, 관리실

노천카페
소공연장

2층:숙박연수(소회의실)
1층:창업보육센터

주차장
이벤트, 교류광장

쉼터
놀이공간

진입로(향후개선)

진입로(현)

마을만들기 협력 네트워크 참여범위(안)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로컬푸드사업단
뿌리협회, 마을축제조직위, 한일교류협회



진안고원길, 마을리서치공동체



공정여행사업단 풍덩,
자활센터(나눔푸드, 집수리...)
평생학습센터+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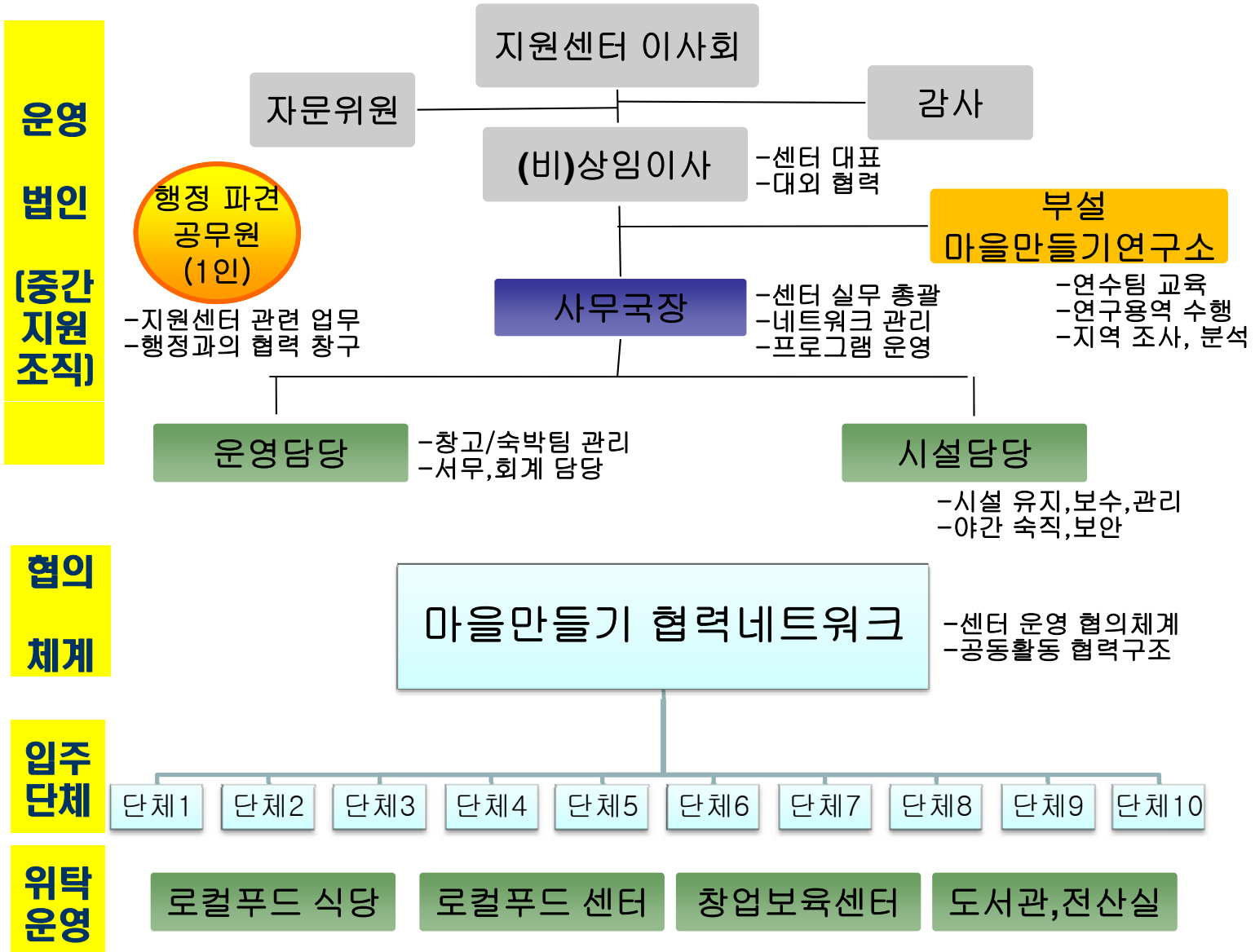
품, 농촌으로가는길, 최성재(설계), 길진원(자전거)
이규홍(학교), 조헌철(컴퓨터), 마을목회자모임 ...

개인, 단체와 지속 협의하고 확대
(1인 창업 지원센터)

농촌가공 영역에 대한 고민
= 행정의 업무 분장(칸막이 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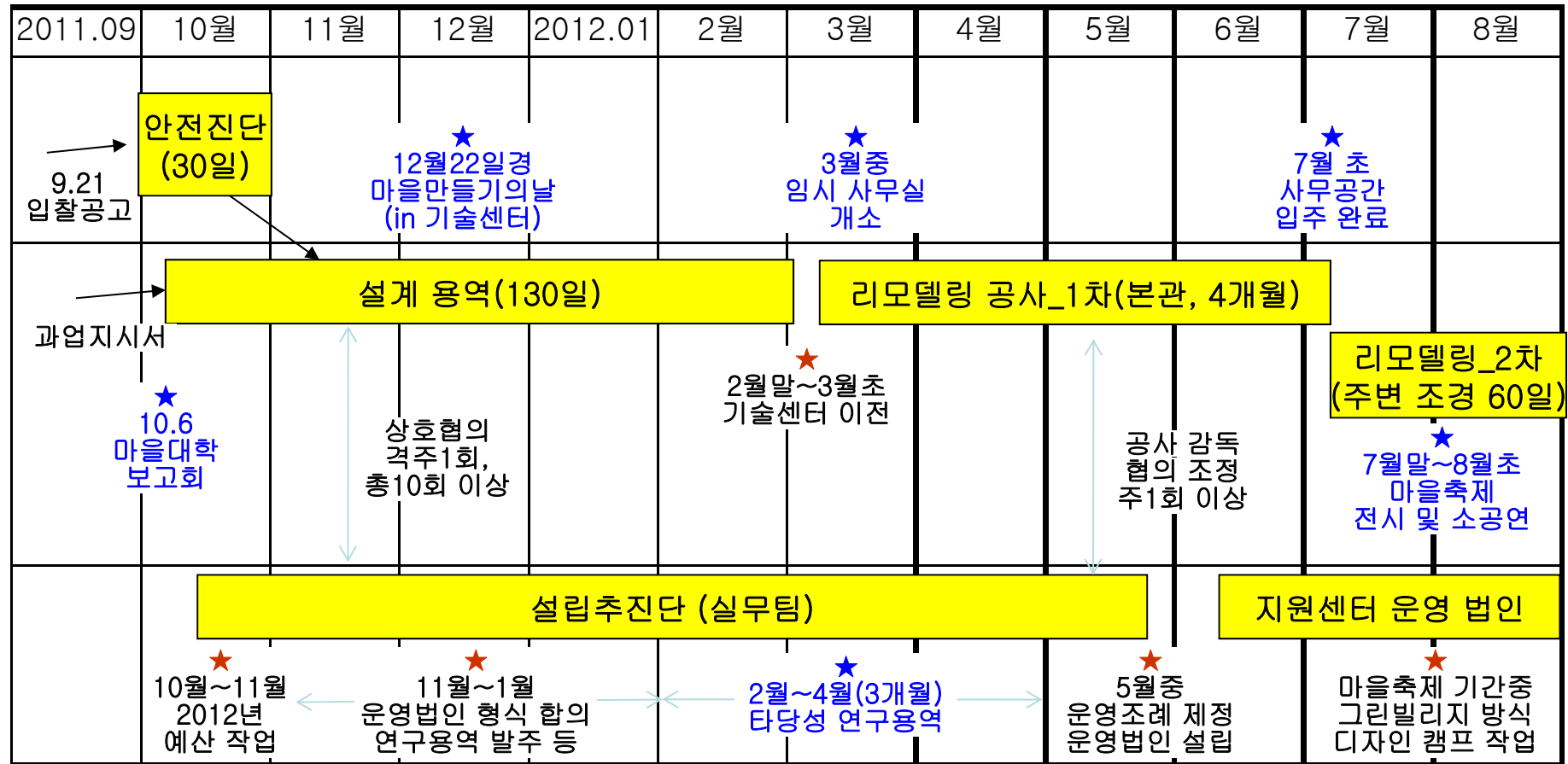
운영 법인 체계(구상안)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적절한 경쟁과 협력의 네트워크



향후 일정

주민참가형 건축 설계 및 리모델링



2012년 7월, 사무기능 우선 입주
2014년부터 독립채산제 운영

4. 전북도 2012년 [농식품 6차 산업화] 시범사업 활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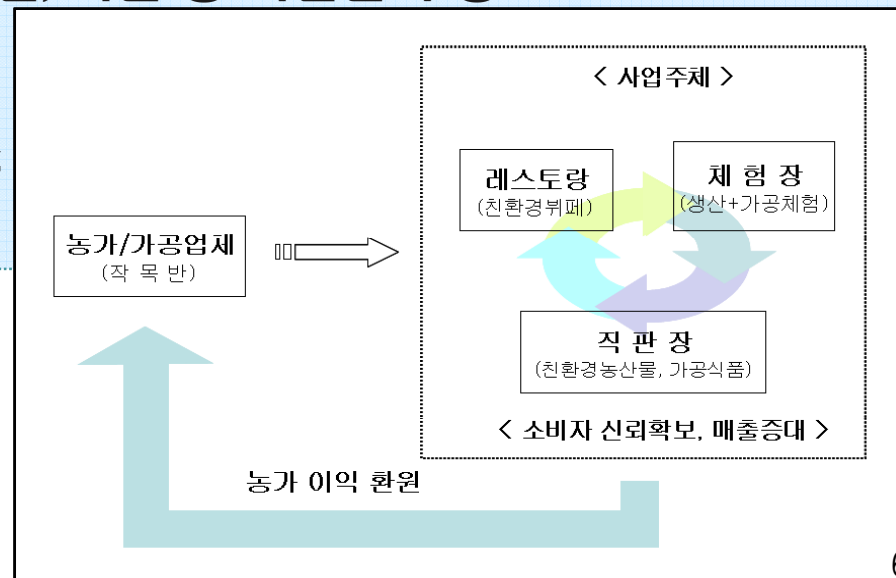
- 생산자-소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 · 거래**가 **농가에 소득환원, 안정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차별화된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농산물의 생산·판매 형태에서 탈피하여 농식품의 산업화를 기반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 산업형 농가 소득모델 육성

<사업 개요>

- 예산 : 개소당 20~50억 (광특 50%, 지방지 30%, 자부담 20%)
- 사업주체 : 작목반, 생산자단체, 농/축/원협, 마을 등 사업단 구성
- 사업기간 : 2년
- 사업물량 : 2012년 6개소, 2013년 4개소
2014년 4개소

<사업모델>

사업주체가
계약생산, 가공, 소비자 연계
직판장, 레스토랑, 체험시설 운영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길
민관협력으로 가시적 성과의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구축
감사합니다